

■한은, 사상 최대 파격 금리인하 왜?

내년초 '최악 상황' 저지 극약 처방

추가 인하 시사...2%대 초반까지 내릴 듯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한 것은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른 데다 자금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금리인하=한은 금통위는 시장과 경제전문가의 '상상'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한번도 내려보지 않았던 1.0% 포인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준금리 3.00%도 한은 기준금리 역사에서는 없었던 수준이다. 한은은 1999년에 통화정책 수단을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이후에 3.25% 아래로 기준금리를 낮춘 적이 없다. 역대 최저치는 2004년 11월의 3.25%였다.

◇왜 파격적인 선택을 했나=한은의 이번 결정은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줄어들면서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11월 취업자는 2천381만6천명

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8천명(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0.50%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돼 있어 한은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1.00%포인트를 선택했다.

◇한은 "천천히 금리 내릴 여유 없다"=한은은 그동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사용률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한은은 물연 입장을 바꿨다. 위기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늘어나자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충격적인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기다리면서 몇번에 나눠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나빠질게 확실하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금리인하 여지 크지 않다"=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는 크지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의 바닥권을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내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채권 발행이 안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카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총재도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조금(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 아무도 개의치 않는 '유동성 함정' 수준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물건너가나

靑 재추진 불구 野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이 이뤄질 수 있을까.

청와대가 지난 3일 여야 대표회담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재추진 입장을 천명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 개혁법안 등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커 조속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회동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회담 가능성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

로부터 회동과 관련해 어떤 접촉이나 제안도 없었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 붙이려고 한다. 신뢰를 깨 놓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불신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각종 '반(反)민주약법'과 'MB약법'을 밀어붙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만 참석한 가운데 여야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 더러 회동을 강행해 봤자 '반쪽'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 비판을 받은 터라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은 물건너가나"는 말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입دم기자 tuim@

"평생 일자리로 국가 시스템 바뀌어야"

李 대통령, 인력개발원 방문 역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나이가 들어도 일 자리를 가질 수 있는 '평생 일자리' 개념으로 국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인력개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90세 가까이 사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70대까지 봉사는 사회봉사로 자신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평생학습기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개념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여러정책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일자리 만들기여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력개발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취업난에 언급, "나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대기업에 가봐도 꿈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한사람의 능력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요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면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일류국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책상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같은 기술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뇌졸중예 시들시들... 제 역할 못해"

전여옥 독설 "원외 박희태 대표, 건강 안 좋고 한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11일 여당이 172석의 의석을 갖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숫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이 성장통을 앓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마치 뇌졸중,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앓고 시들시들하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모습이 지금 이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원외라는 점이 박희태 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지 않느냐"라며 "원외 대표를 내세우고 가는 것 자체가 국회의 역할, 집권 여당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접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는 그 정당의 간판"이라면서 "대표가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기운과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국민께 전해야 하는데, 박 대표가 건강도 안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만족해서 안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태수생 선명학습반 / 회비고 1000년 교육대 · 서울대 · 연고대 · 경문대 특표한 인재

태수생 선명학습반 / 회비고 1000년 교육대 · 서울대 · 연고대 · 경문대 특표한 인재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보양음료 숙취해소

보양음료 숙취해소